

2017년 1학기 노동경제학연구(실증분석론)-김대일

설 문 내 용	결과	전체
1.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데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		
(1) 필수과목이기에	0(0%)	16(100%)
(2)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	1(6%)	
(3)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12(75%)	
(4)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	3(19%)	
(5)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	0(0%)	
(6) 명강의로 소문나서	0(0%)	
(7) 재수강	0(0%)	
2.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다?		
(1) 1/4 미만	0(0%)	16(100%)
(2) 1/4 이상 2/4 미만	0(0%)	
(3) 2/4 이상 3/4 미만	0(0%)	
(4) 3/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	4(25%)	
(5) 거의 100%(거의 매번 출석)	12(75%)	
3.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다? ((1)-(3)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)		
(1)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	0(0%)	16(100%)
(2) 시험 때만 하였다.	0(0%)	
(3)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.	0(0%)	
(4)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.	11(69%)	
(5)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.	5(31%)	
4.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6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6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9(56%)	
(5) 매우 그러했다.	6(38%)	
5. 사용된 교재,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6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4(25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4(25%)	
(5) 매우 그러했다.	8(50%)	
6.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6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1(6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10(63%)	
(5) 매우 그러했다.	5(31%)	
7.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6(100%)
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그저 그러했다.	0(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8(50%)	
(5) 매우 그러했다.	8(50%)	
8.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(질문, 면담, 게시판, e-mail)를 제공받았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7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1(6%)	
(3) 그저 그러했다.	3(18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4(24%)	
(5) 매우 그러했다.	9(53%)	
9.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?		
(1) 너무 적었다	0(0%)	17(100%)
(2) 적은 편이었다.	2(12%)	
(3) 적절했다.	14(82%)	
(4) 많지만 할말했다.	1(6%)	
(5) 너무 많았다.	0(0%)	
10.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너무 쉬웠다.	0(0%)	16(100%)
(2) 쉬운 편이었다.	0(0%)	
(3) 적절했다.	9(56%)	
(4) 어렵지만 할만했다.	6(38%)	
(5) 너무 어려웠다.	1(6%)	
11. 교수님의 강의 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.		
(1) 매우 느슨했다.	0(0%)	16(100%)
(2) 느슨한 편이었다.	2(13%)	
(3) 적절했다.	10(63%)	
(4) 딱딱하지만 할만했다.	4(25%)	
(5) 너무 딱딱했다.	0(0%)	
12.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16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4(25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6(38%)	
(5) 매우 그러했다.	6(38%)	
13. 실습 또는 연습시간(TA session)은 유용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3(6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2(40%)	
(5) 매우 그러했다.	0(0%)	
14.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?		
(1) 전혀 그렇지 않았다.	0(0%)	5(100%)
(2) 그렇지 않았다.	0(0%)	
(3) 잘 모르겠다.	2(40%)	
(4) 대체로 그러했다.	2(40%)	

(5) 매우 그러했다.	1(20%)	
전체		

기타 건의사항

- 이론과 실증을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좋았는데 한 학기에 발표까지 하려다보니 벽찬 면이 있는 것 같다. 노동경제학 1, 2로 수업을 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.
- 1시간 30분 수업이 아닌 3시간 수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업의 연속성이 있었으면 합니다.
-
- 수강생이 많아 어쩔 수 없었지만, proposal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아쉬웠다.